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2호 [루계 제25996호] 주제 107 (2018)년 5월 2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절세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넷에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동지』를 태양절에 즐음하여 출판하였다.

사이의 천선판계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주시고 수리아인민의 정의 위엄에 물심양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존함과 업적은 수리아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브로브라리아 대로제에 대하여』,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때 대하여』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태양절에 즐음하여 이탈리아 및 라노주체사상연구센터가 4월 1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동지』는 그이의 불멸의 혁명영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방법은 혁명필수 없이다』를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가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홈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절에 즐음하여 이탈리아 및 라노주체사상연구센터가 4월 1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달이다』를 태양절에 즐음하여 폴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탐구를 위한 국제선발기 4월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절에 즐음하여 수리아 알 바아스신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최근에 진행되었다.

신문사 총사장 아브둘 라티프 오르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 전보적인 민들의 영원한 수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태양절에 즐음하여 김정일동지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리아와 조선

세계는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공동 성명 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방글라데시로동당, 민족사회주의당, 자티야당, 공산당,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인민련맹, 사회주의당, 방글라데시-조선친선 및 현대성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선군정치연구소가 4월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명은 2018년 4월 전원회의의 범진로선의 주체로 한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명도길에 조선인민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롭게 전진하는 지지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여러나라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긍정적인 노력을 위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의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주체사상연구소에 파드로문화협회, 조선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구도에서 국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부합되는

방글라데시의 정당, 단체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긍정적인 노력을 위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의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주체사상연구소에 파드로문화협회, 조선

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에 파드로위

원회, 조선인민파의 천선문화회원대성에 파드로파단협회가 4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세계가 함께 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김정은 각하께서 세시기에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빛나게 판될 것이다.

세계는 미지 않아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범합없는 지지와 현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5.1절 128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 판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여러나라에서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밟고 평안북도 당위원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으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선로교, 병법,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

하는 결론사찰의 기품을 세워야 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게 당시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당원들에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당원

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

시키고 그 판철에로 대중을

비로도 험난한 전투적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리고 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는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여러나라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정신을 위한 확신

시작으로 전투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도록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

평안북도당 위원회에서

차례 타오르게 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뜻을 맡고 있는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

구장지구란평원합기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기업소, 평안북

도간식지건설종합기기업소, 신

지주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박천경직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당조직들

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

에서 당시 제시한 새로운 전

략적로선을 판찰하기 위한 정

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 새

로운 기적창조투쟁으로 부글

부글이었도록 하여 전투적

사업을 힘있게 하고 있다.

구장지구란평원합기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기업소, 당원회

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며 당정체관련의 기수들인 일

군들이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

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대

중원장을 앞세우고 합리적

적인 재한방법을 받아들이면

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락원기계련합기기업소 당원회

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며 당정체관련의 기수들인 일

군들이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

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대

중원장을 앞세우고 합리적

적인 재한방법을 받아들이면

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구장지구란평원합기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기업소, 당원회

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며 당정체관련의 기수들인 일

군들이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

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대

중원장을 앞세우고 합리적

적인 재한방법을 받아들이면

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구장지구란평원합기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기업소, 당원회

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며 당정체관련의 기수들인 일

군들이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

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대

중원장을 앞세우고 합리적

적인 재한방법을 받아들이면

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구장지구란평원합기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기업소, 당원회

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며 당정체관련의 기수들인 일

군들이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

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대

중원장을 앞세우고 합리적

적인 재한방법을 받아들이면

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구장지구란평원합기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기업소, 당원회

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

며 당정체관련의 기수들인 일

군들이 과학기술을 혁신과 비

약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대

중원장을 앞세우고 합리적

적인 재한방법을 받아들이면

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혁명적대진군에서 주체조선 근로자들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자

중앙 보고 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승리자의 코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용기백배, 기세충만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도선을 판별하기 위한 두정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월 128돐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5.1절은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통성명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동지에게

금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위력을 높이 떨쳐며 전세계근로자들의 령대성을 더욱 두드려야 하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5.1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의해 주체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애국적열의와 혼신적노력을 바쳐가는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반민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북의 근로대중과 민주주의 척민족권리를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칠략과 전쟁을 빙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근로자들에게 전투적인사와 굽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동지들!

조선혁명의 력사는 근로자들을 혁명의 주인, 시대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기여주면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을 다 빼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령도의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억압받고 척취받던 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를 개척하시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화를 토대로,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요구와 력의에 맞게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해나가는 혁명령원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가고자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의 준엄한 날아에서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뜻깊게 기념하도록 하시고 해방후 첫 5.1절기념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혁신적인 열성을 헌신해나가면서 조국건설에 적극 참여나서도록 고무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인 주체의 혁명적장을 창건하시고 청원과 멀리수만명을 모아온 민의 대표들로 국가주권기판을 세워주면서 근로하는 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한평생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혁명적인 근로자, 부강조국건설의 당당자로 키워주시고 근로민대중의 무한한 정신력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기적의 창

조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로민대중의 전투적위력과 창조적 힘에 의지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승리의 명령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혁명령도를 끝없이 빛내이시며 인민사랑의 정체, 인민 정치로 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의 두리에 풀어놓았습니다.

세우고 일심단결의 위력을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5.1절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세계근로자들의 혁명적명절로 기념하게 하시었으며 근로대중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들어와 광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완강한 공격성과 대담한 창조기품을 품은 민족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근로단체대회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사력을 다해 보내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지닌 최상의 행운입니다.

전체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월 128돐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기록창조의 근본분위기로 내세우고자 광장파, 농촌,

과학연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담당자,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로 역세

기 키우시겠습니다.

마치자, 낫, 봇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밀음속에 금풀의 새평소대가 만족되며 영마을에로운 사명과 임무를 풀어놓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심장속에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지강의 정신,

혁명적인 총공세의 진군길에 넘치는 근로자들의 랑만과 기쁨

각지에서

5·1절을 뜻깊게 기념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할에 대한 당의 철두적호소 따라 경전설설진군에 떨쳐나온 전체 인민이 1일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정도 따라 세기적변혁을 이룩해가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각자로동자, 노동민, 지식인들은 영광의 9월을 향한 혁명적인 총공세의 진군길에서 주체조선의 근로자들의 혁명적개과와 영웅적상을 더 높이 펼쳐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명절을 즐겁게 보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합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파의 사회주의이다.》

증산의 동음으로 들끓는 공장들과 협동점야, 철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파악 연구기지들을 비롯하여 만리마의 기성이 나래치는 조국땅 그 어디나로 생활의 진정한 창조자,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가 되어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근로자들의 기쁨과 랑만이 차넘치였다.

수도의 국장들과 공원, 유원지 등에서 중앙예술단체들의 경연공연들과 근로자들의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연예연

방터져나왔다.

페비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이 통라인민유원지와 3대혁명전시관앞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불과 장단, 춤가락으로 펼친 화희로운 경축 공연들은 명절을 즐기는 근로자들의 홍거운 춤판으로 이어졌다.

대동강과 보통강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브트를 타고 솟고 뛰며 노를 저어가는

광경과 유후판, 청류판 등 급

양봉사망들에서 천결한 봉사를 받으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인민의 행복남친 모습도 수도의 명절풍경을 이채롭게 해주었다.

각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얼마전 우리 식의 산소전로건 설로 우리 동계급의 자력갱생의 두쟁본때를 또 한번 파시한 황해체육련합기업소와 북창회 역발전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

제사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많은 단위들에서는 혁신자축하고 입과 특색있는 축하공연부대로 근로자들의 충천한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9월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강서구청 청산협동농장 등

각자로운 행사를 진행되었는데 우리 식의 산소전로건 설로 우리 동계급의 자력갱생의 두쟁본때를 또 한번 파시한 황해체육련합기업소와 북창회 역발전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

양상장을 일으켜가고있는 자기들

의 단결된 힘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새로 개건된 신의주경기장에서는 평안북도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시, 군, 편합기업소 황제육경기장에서 기적적승리의 포상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올려나감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생활향상을 적극 추동해 갈마음안고 명절을 의의 있게 보내였다.

승리자의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5·1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각자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기적적승리의 포상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올려나감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

사로 빛내여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



-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일 마무로 한단 재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

하선 절세위인들에 대한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봉꽃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원을

제6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폐막

보건부문 일군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제6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봉구, 배구, 탁구, 바둑당기기 등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평양시와 각 도의 체육관, 경기장, 체육공원 등에서 진행되었다.

제막식이 1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당

의 대중체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며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려는 보건부문 일군들의 사상정신의 힘있는 파시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경기대회를 통하여 양양된 기세를 고조시켜 대체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당의 보건정책방침에 헌신함으로써 공화국체육전통을 훈련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이곳 초급당위원장은 훈련을 하지 않았다.

물론 조건이 어려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건이 좋았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본교사와 수십개의 교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부 일군들은 자체로 레이스와 부족한데 자체로 개건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머리를 기울거렸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요구를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한번은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서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학에 깃 들어 있는

가장은 웃음꽃을 피워주는 일군들을 대할 때마다 꼭 친자식, 친형제같습니다.

고마운 그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전쟁로병들을 로쇠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반들며 후대들에게 백록달이 죽어버리 않는 혁명신랑,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퍼줄기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워졌다.

저는 그 높으신 뜻을 받아들여 새 세대들에게 애국충정의 냄새 조국보위정신을 길이 심어주며 전쟁로병에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보통강구역 류경2동 59인민발

십 영희

국장이 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부성 일군들과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공식유희달리기 진행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공식유희달리기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아시아올림픽위원회가 해당 나라와 지역의 민족을 융합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공식유희달리기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체육행사이다.

개막식이 1일 청춘거리 농기경기장에서 있다.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민 주조로씨 애국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과 아시아올림픽위원회 대표들, 주조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 올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

신의주영예군인경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연구학습하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 학생들에게 대한 향수교양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서는 기본교사와 교실, 기숙사의 모든 협동과 협동체육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면시키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한 대학에서는 교수내용과 향수교양사업을 전진하게 찾았나니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기본교사를 개건한데 이어 수십개의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면시키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한 대학에서는 교수내용과 향수교양사업을 전진하게 찾았나니었다.

일군들은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자체로 블로크를 썩고 벽체축조도 하면서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을 개선하는데 힘을 놓았는데 향수교양사업을 전진하게 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들은 온갖 협동체육을 만들어 교수내용과 방법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건이 좋았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본교사와 수십개의 교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개건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밟고나갔다.

후원단체들도 분발해 나섰다. 후원단체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혁신적인 애목을 가지고 대단히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관을 벌리면서

대학에서

앞체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해당 단위들에서 개건공사를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기본교사를 개건한데 이어 수십개의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면시키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한 대학에서는 교수내용과 향수교양사업을 전진하게 찾았나니었다.

일군들은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자체로 블로크를 썩고 벽체축조도 하면서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을 개선하는데 힘을 놓았는데 향수교양사업을 전진하게 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

그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들은 온갖 협동체육을 만들어 교수내용과 방법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건이 좋았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본교사와 수십개의 교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

그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들은 온갖 협동체육을 만들어 교수내용과 방법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건이 좋았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본교사와 수십개의 교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

그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들은 온갖 협동체육을 만들어 교수내용과 방법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건이 좋았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본교사와 수십개의 교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

그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들은 온갖 협동체육을 만들어 교수내용과 방법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건이 좋았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본교사와 수십개의 교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

그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들은 온갖 협동체육을 만들어 교수내용과 방법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건이 좋았을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본교사와 수십개의 교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두쟁으로 교직원들을 힘있게 불러일

그 과정에 대학의 교직원들은 온갖 협동체육을 만들어 교수내용과 방법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자로 되었으며 지난 5년동안 수많은 교원들이 수십전의 새교수방법등록증을 수여받을수 있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여 많은 교원들이 학위학적소유자대렬에 들어섰다.

이곳 일군들은 대양온실과 수백m²의 종합축사, 양이장, 비섯재배장,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을 개선한 대학에서는 교수내용과 향수교양사업을 전진하게 찾았나니었다.

기숙사의 모든 호실들이 온돌을 놓아주고 떡갈도 보상해 주었다.

기숙사의 모든 호실들이 온돌을 놓

경 축 모 임 진 행

태양절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서 최우수에게 추대되신 6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위인청중국제축전 조직위원회에서 4월 11일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회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으로 작품과 날로 번영하는 주제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살피는 도서들이 모임장소에 전시되어 있었다.

모임에서는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기구 인사들과 군중들, 조선내외문화학원학원회 대표단, 벨라루시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김일성김정일평명 전국별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찌기 높은 무장하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불懈의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조선인민이 서 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한편 이날 백두산위인청중국제축전 조직위원회가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모임에서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물

리치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아갔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범 합없이 계승해나가시는 주체사상의 정성성과 생활력을 조선혁명의 실천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다.

오늘 사회적지보를 위한 두쟁의 앞장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헌신하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불懈의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조선인민이 서 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한편 이날 백두산위인청중국제축전 조직위원회가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피고석에 앉아야 할 극악한 인권범죄자

미국이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가정 폭력의 희생물로 되고 여성의 약 20%가 강간당하고 있다. 여성적으로 790여만명의 실업자를 가지고 있다.

범행하는 총기류범죄에 의해 신성한 교정이 처결한 살인마당, 인간도살장으로 화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전국적으로 약 6만 1 100건의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났다. 그로 하여 1만 5 4 8 8명이 죽고 1만 0 5 8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감우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오명을 떨고 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경찰들이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게 살해하는 인권유린국가는 없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다. 교육, 법적보호, 보건, 선거 등에서 유색 인종 및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판란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범죄의 모

든 나라들이 지켜야 할 국가판례의 기본원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내정문제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제멋대로 사대질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허술성을 하는 공인된 국제법적 원칙을 부정하는 비법불법의 행위이다.

미국이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인권문제에서 항상 자기를 위우에 세우고 다른 나라들을 꾀고서서 몰아넣어 자국의 험악한 인권상황을 문제시 할 수 없게 만들자는데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정당화 합법화하는데 있다.

남북미가 제작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나라들을 걸고드는 미국의 솔책은 오히려 자기를 인권과 고속에 몰아넣는 자발행위로 되고있다.

최근 중국국부원 보도관공실은 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과 2017년 미국의 인권현황에 사건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권실태를 제멋대로 외워하는 미국을 비난하고 지난 한해동안 미국에서 강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을 유행, 일별로 상세히 열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도 2007년부터 2011년사이에 1만명이상의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세계의 인권유린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미국은 주권이 유린, 통락당하면 인권도 무관히 유린, 말살당한다는 것은 현실이 보여주는 베저린 교훈이다. 세계가 전례

없는 피난민대란에 직면하게 된것도 바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합법적인 주권국가

들의 정부들을 전복시킬 목적밀에 미국이 감행한 주권침해행위의 결과이다.

미국이 아말로 지배주의 아방일선을 위해서는 피비린 인간살육행위도 서슴지 않는 인권유린의 왕조, 평화교살자이다.

세계도처에 세워놓은 비밀감옥들에서 인간증오사상으로 걸들여지고 인간도살을 염으로, 폐락으로 삼는 미군이 감행하는 고문은 세계를 세 살사람들의 경의를 자아내고 있다. 판마다 모미해 군기지 감옥을 비롯하여 미국의 비밀감옥들에서의 아동행위는 미행정부의 미중양정보국의 승인, 조장하에 감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인권옹호》라는 것이 파악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최악의 인권유린자, 흉악한 인권살사로서의 미국의 범죄적정체는 날이 끝났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내정간섭과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고 있다. 밤간전쟁, 이라크전쟁 등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쿠에 걸고 감행한 범죄적인 전쟁들이다.

미국이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들고 갖은 혐오수사를 다 쓰고있지만 그들의 《인권》소동의 기만성과 침략성은 그 무엇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가 미국을 인권에 대해 본질적 격을 완전히 상실한 인권유린의 원흉으로 끝난, 규탄하면서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내여 죄를 짓고 정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반인권죄악을 저지른 세계최악의 인권범죄국인 미국은 당연히 국제법정의 피고석에 앉아야 하며 엄정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미국은 주제넘게 《인권》타령을 늘어놓으면 다른 나라들에 혼시해 떨것이 아니라 저들의 인권죄악부터 심각히 반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현도

태 양 절 에 즈 음 하 여

리나라에서 좌담회, 강연회 진행

태양절에 즐음하여 중국, 몽골, 기타,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브웨, 앙골라, 에티오피아, 베트남, 브라질에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기간에 좌담회, 강연회가 전개되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인과 참가하였다. 중국 국립문화체육교류 중심 비서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 중국의 대세명도자들에게 친히 마련해 주신 종로적인 중조선은 두 나라의 공동의 재부이다.

그분께서는 두터운 혁명적

우의로 서로 지지협조하시면서 세계역사에 빛나는 장을 수놓아 오시였다.

김일성 주석의 높으신 국제적 권위에 대해서는 전인류가 공인하고 있다.

이란조선친선 마그달농목장 지배인은 위대한 김일성각하는 조선민족의 일원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인 김일성同志의 태양의 모습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조 통 당 한 반 역 당

지방자치체선풍을 앞둔 《자유한국당》은 막신 살이 단단히 펼쳤다. 한때 같은 베거지였던 전여우한강에서 심한 조폭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전여우한강에서 울린 글에서 《자유한국당》을 「물을 만한 한 살이 놀아있지 않은 닭의 갑비뼈」와 같은 존재 즉 『계룡주』으로 끝이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체선풍에 나선 이 반역당의 후보들인 김문수, 김태호, 리세계에 대해서는 『유호기』로 지칭되는 의미에서 『늙은 노년으로 애우하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체선풍에서 민족과 반역, 부정부폐를 생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베거지들에게 준엄한 철학을 안기겠다고 유포되고 있다.

오르지 못한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는 이미 막상가 전하게 비겼다. 그러니 어제까지 한가마법을 먹던 전여우에 고개기운한 철학이라고 끊었다. 『자유한국당』에 베거지들은 성이 독감이 올랐을것이지만 어쩔수 없었다.

원래 『자유한국당』에 베거지들이 지방자치체선풍에 추악한 상통을 들이밀려 하는 것자체가 품수없

는 당장이나 『자유한국당』의 요구이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 이런자

를 또다시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추천한데 대해 격

분을 급수할 수 없다고 결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끼여들려는 보수야당을 규탄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참사에 참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4월 25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참사장 규명과 관련하여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 보수수정권 시기 1기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황진원이 이번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사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 참사 진상규명에 끼여들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습근평 주석 인민생활향상 문제에 대해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최근 호복성을 현지로 돌아왔다.

로에 파정에 그는 인민생활은 최대의 정치이라고 하면서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제일 현실적인 리의 문제들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혁파는 여러 나라와 유럽동맹, 이란이 공동으로 협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곤난한 군중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중시하는 한편 여러

경쟁과 협력으로 부유한 사회를

하고 정확한 인민구제와 민족발

률을 지향함으로써 인민생활에 대해 강조하였다.

대변인 이란핵 합의에 대해 강조

상을 진행하여 이룩한 다무적인 합의라고 밝혔다.

중국 대화와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합의의 엄숙성과 완전무결성을 계속 수호해 나갈것

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는 합의이고 공정하고 책임적인 합의로 향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 참사 진상규명에 끼여들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소조업

나미비아의 남부지역에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조업하였 다. 4월 26일 발전소조업식이

진행되었다. 5 000KW의 발전

능력을 가진 이 발전소는 국가

전력망과 편결된 첫 풍력발전소

로서 나리의 전력수요를 충족시

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전력

생산의 70%를 재생에너지로

보장할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반구에서 변함없이 휘날리는 사회주의의 기치

지난 4월 16일에 주바의 수도 아비나에서는 사회주의성

도시에 아비나에서는 사회주의

화행사가 진행되었다.

매해 사회주의성격선포의 날을 맞을 때마다 주바는 국가적 규모에서 행사를 벌린다. 이 날이 바로 주바가 자기 혁명의 진로를 온 세상에 명확히 선포한 매우 중요하고 있어야 할 날이기 때문이다.

당시 혁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의식에서 피멘 까스뜨로동지는 사회주의에 나아가는 길에 인민들의 정성과 자유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바혁명의 성격을 선보하였다.

주바인민은 피멘 까스뜨로동지의 지휘밑에 블라야 허론에 대한 침략의 서곡이다.

당시 혁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모장이 조국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모범을 보인 13명의 일

군들과 3개의 단체에 장도를 수여하는 행사가 의의있게 전개되었다.

사회주의성격선포의 날을 맞으며 전개된 일련의 행사를

통제와 함께 전개되는 행사를

제기하고 있다. 그에 맞춰

제기하고 있다. 그에 맞춰